

# The CNN Classification for the Biology 1 of the Korean CSAT

HaYoon Song\*

School of Computer Scienc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librarymusik@gmail.com

HyeonSeop Shim\*

School of Computer Scienc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B811101@g.hongik.ac.kr

## Abstract

대한민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생명과학 문제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5개의 최종 노드로 나누어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해법을 모색한다. 각 문제의 첫 문단을 Tokenizer와 Padding 작업을 거쳐 5,000개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를 거친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그리드-서치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하이퍼파라미터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구간으로 나눈다. 시험 평가 단계에서는 Train-Validation-Test Split (6:2:2)을 통해 결과적으로 729 개의 모델들로부터 각 구간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Test-Set 평가에서의 정확도가 높은 상위 5개의 모델을 찾아, 모집단의 정확도를 구하기 위해 샘플 모델들을 각각 100 개 씩 만들어 표준정규분포로 정확도를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05 내에서 93.71%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각 문제들의 텍스트를 인식하여 정해진 5개의 유형에 맞게 자동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구현하도록 한다.

**Category:** Embedded Computing

**Keywords:** CNN, Train-Validation-Test Split, LMS, Text Classification,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Grid Search, Categorical Crossentropy

## I. INTRODUCTION

대한민국의 국가 시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마지막 관문이다. 여러 교육 산업들은 수험생들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 주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AI) 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AI를 부가 도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1]에서는 현재 수준의 교육용 AI는 수학의 수식 인식[2]을 통한 수학 문제 유형 분류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나머지 과목들 중 텍스트 중심 형태로 이루어진 문제들을 유형 분류하는 모델 개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분야 중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통하여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 생명과학 1 유형을 5개로 나누어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데이터는 해당 과목 중 생명과학 5,000개의 문제로부터 각각 첫 번째 문단을 텍스트로 변환 처리한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토큰라이저 작업과 패딩 작업을 거치게 된다. 전처리된 데이터들은 모두 Train Set, Validation Set, 그리고 Test Set으로 나누게 된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그리드-서치 알고리즘 기법을 통하여 총 6개의 하이퍼파라미터 독립 변수

들(Input\_dim, Output\_dim, Epochs, Conv1D\_filter, Conv1D\_kernel, density)을 이용하여 729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평가 시험 단계에서는 각 모델들의 정확도로부터 하이퍼파라미터 구간에 따른 평균-정확도를 구해 분석하게 된다. 그 다음, 정확도가 높은 상위 5개의 모델을 각각 100개씩 생성하여 Z-분포의 신뢰도 90%, 95%, 99%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게 된다.

## II. RELATIVE WORK

일반적으로, CNN 모델은 이미지를 인식하여 패턴을 찾는 분류 모델[3]로, 2차원 구조에서 이미지의 공간 정보[4]를 유지하여 Fully Connected Layer에 입력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한정한다. 하지만 텍스트를 인식하여 분류하는 모델 구현할 경우[5], 주로 1차원 컨볼루션 망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시퀀스에서 패턴을 찾게 되며 임베딩 작업을 통해 실수 벡터로 변환해 문맥적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텍스트로부터 word2vec을 통한 전처리 작업(Embedding)[6]을 거치기도 하지만, 해당 작업이 꼭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진 않는다는 연구 결과[7]

**Open Access**    yy.5626/JCSE.2011.5.2.xxx

<http://jcse.kiise.org>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00 Month 2011, Accepted 00 Month 2011, Revised 00 Month 2011

\* Corresponding Author

가 있어,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8]

먼저, 텍스트를 숫자 차원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의 전처리 작업을 거치게 된다.

토큰라이저(Tokenizer) 단계에서는 텍스트 문장을 작은 단위인 'Token'[9]으로 나눈 후, 각 토큰에 대해 정수 인덱스 할당하는 과정[10]을 거치게 된다. 단어 대신 인덱스로 교체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된다.

패딩(Padding)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시퀀스 데이터(Sequence Data)를 일정하게 길이를 맞추는 작업[11]을 하게 된다.

이로써, 첫 레이어에서는 저차원 벡터로 임베드[12]하게 되며, 그 다음 레이어(Hidden Layer)에서는 여러 사이즈의 필터를 통해 벡터에 대한 합성곱 변환[13]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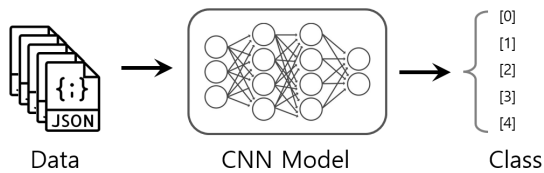


Fig. 1: The Layout of CNN Model

실험 모델에 들어갈 데이터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과목 중 생명과학 1 문제들을 참조하였으며, 총 5,000 문제의 텍스트 데이터와 5개의 클래스를 준비하였다. 각 문제들은 one-hot encoding 형식으로 5개의 클래스 중 하나만을 가지게 되며, json 파일 형태로 일관되게 저장한다. 즉,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들은 후에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나 기존에 학습된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5개의 단원 중 하나를 예측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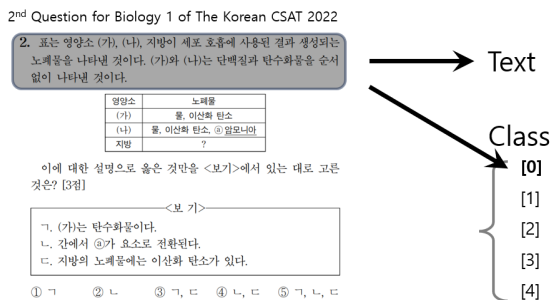


Fig. 2: The Data Layout for the Model

### A. Grid-Search Algorithm

성능(정확도)이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 모델의 변수들에 인위적으로 정적인 값들을 대입하여 탐색하는 기법[14]을 제안한다. 해당 모델 개발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총 6개로, 독립 변수들(Input\_dim, Output\_dim, Epochs, Conv1D\_filter, Conv1D\_kernel, density)에 각각 세 구간으로 나누어 여러 조합의 모델을 탐색하게 된다.

### B. Train-Validation-Test Split

기존에는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데이터셋 분리는 Train-Test Split (8:2) 형태[15]로 진행했으나, 해당 모델의 개발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을 위해 Train-Validation-Test Split (6:2:2)를 제안한다. 이러한 데이터셋 분리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Validation-Set과 Test-Set 간의 차이가 있다. Validation-Set에서는 훈련시킨 데이터에 대해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게 된다. 반면에 Test-Set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에 중간 검증 과정에서 과적합 영역[16]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실제 성능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른 견고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C. Z-분포(표준정규분포)

실험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은 예측 정확도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된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준적인 평가 척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샘플 모델들의 예측 정확도에 대해서 Z-분포(표준정규분포)를 제안한다. 표본 개수가 약 30개 이상으로 충분할 때, 중심극한정리[17]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확률변수  $X$ [18]의 평균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매개변수 중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그 모양이 결정된다.

$$z = \frac{(x - \mu)}{\sigma / \sqrt{N}} \quad (1)$$

$z$ 는 데이터의 포인트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단위이다.  $x$ 는 각 개별 데이터의 포인트가 된다.  $\mu$ 와  $\sigma$ 는 각각 모집단에서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말한다.  $N$ 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샘플 모델의 개수를 말한다. 무작위로 생성된 데이터셋들로부터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진 샘플 모델들을 최대한 많이 생성하여 모집단 모델의 정확도를 구하기 위해, 샘플 모델들의 평균-정확도와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값들을 구한 후 신뢰구간을 3개로 나누어, 각각 90%, 95%, 99%에 대한 정확도 분포를 구하게 된다.

### D. Categorical Crossentropy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손실 함수[19] 중 하나이며, 실제 클래스 레이블과 모델의 예측 정확도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한다. 주로 softmax 활성화 함수[20]와 함께 사용된다. 각 클래스들의 확률 분포의 합은 1이 되며, 레이블이 1인 클래스만 로그 확률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H(y, \hat{y}) = - \sum_i y_i \log(\hat{y}_i) \quad (2)$$

$H$ 는 교차 엔트로피의 손실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y$ 는 실제 레이블의  $i$ 번째 클래스에 대한 값이며, 주로 one-hot encoding 형식으로 표현된다.  $\hat{y}_i$ 는 모델에 의해 예측된  $i$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다. 손실 함수의 계산은 레이블이 1인 클래스에 대해서만 수행되며,

예측된 확률의 로그 값에 실제 레이블 값을 곱하여 모든 클래스에 대해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손실 값은 양수가 나오게 되며, 낮은 값일 수록 모델이 제시한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MODEL GENERATION

이 영역에서는 모델에 대한 시험 평가를 두 번하게 된다. 하이퍼파라미터는 총 6개로, input\_dim, output\_dim, epochs, conv1D\_filter, conv1D\_kernel, density로 부터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input\_dim은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텍스트 형태나 차원을 나타낸다. output\_dim은 합성곱 신경망을 통과하여 나오는 예측값이나 분류 결과의 차원을 말한다. epoch는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학습 과정을 거치는 횟수를 말하는데, 일반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말한다. conv1d\_filter는 1차원 합성곱 계층에서 사용되는 필터를 말한다. 이는 특징 추출[21]을 하는데 사용되는 학습 가능한 필터의 총 개수를 말한다. conv1d\_kernel은 1차원 합성곱 계층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크기를 말한다. 이는 커널의 크기가 합성곱 필터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어느 범위로 처리할지를 말한다. density는 Dense Layer나 Fully Connected Layer의 층에 있는 뉴런의 수를 말한다. 모든 입력을 각 출력에 연결을 하게 되며, 각 연결치의 weight를 학습하게 된다.

#### A. Grid-Search Test

첫 번째는, 전 단계에서 생성된 729개의 모델을 각 하이퍼파라미터 구간의 평균-정확도를 분석하게 된다. 그리드-서치 알고리즘 기법을 통하여 총 6개의 하이퍼파라미터 독립 변수들(input\_dim, output\_dim, epochs, conv1D\_filter, conv1D\_kernel, density)을 이용하여 729개의 모델들로부터 Validation-Set 평가에서의 평균 정확도와 표준편차를, Test-Set 평가에서의 평균 정확도와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텍스트 유형 분류를 위한 모델 개발 단계로, 5,000 개의 전처리된 데이터를 각각 Train-Validation-Test Split으로 나누어 각각 6:2:2로 무작위 Data Set[22]을 생성하게 된다. 각 모델이 만들어질 때마다 모든 Data Set들은 다시 초기화[23]되며, 일련의 작업들을 다시 거치게 된다.

모델 개발 중 Optimizer[24]는 TensorFlow의 Keras 모델로부터 Adam Optimizer로 설정하였다. Adam Optimizer는 1차 기울기 기반 최적화를 위한 방법으로, stochastic objective functions[25]를 따른다. 학습되는 데이터도 적은 만큼, learning\_rate를 평균적인 수치인 0.001로 설정하였다. compile 함수는 'Categorical\_Crossentropy'로 설정한다.

그 다음, 그리드-서치 알고리즘 기법을 통하여 총 6개의 하이퍼파라미터로부터 서로 다른 729개의 실험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 B. Standard-Normal-Distribution Test

두 번째는, 첫 번째 실험에서 구현된 729개의 모델 중 정확도가 높은 상위 5개 모델을 택하여, 하이퍼파라미터가 같은 각각의 샘플 모델 100개씩 무작위로 생성하여

모델 평가를 진행하며 표준정규분포[26]에 따라 Z-분포의 신뢰 구간(90%, 95%, 99%)에 따른 정확도의 오차 범위를 분석하게 된다.

### IV. EVALUATION

이 영역에서는 각각의 테스트에서 만들어진 시험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를 띄우게 된다. 실험 환경은 모두 Google Colab에서 지원하는 Python3 Google Compute Engine BackEnd 내에서 TPU를 이용하였다. 시스템 RAM은 12.7GB로, 디스크 크기는 107.7GB로 설정하였다.

#### A. The Evaluation for the 1st Test

이 실험에서는 6개의 하이퍼파라미터를 각각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모델들을 생성하였다.

Table I: HyperParameter

category	value		
input_dim	100	150	200
output_dim	200	300	400
epochs	5	10	15
conv1D_filter	64	96	128
conv1D_kernel	5	10	15
density	64	96	128

Table I에서는 앞서 'Grid-Search Test'에서 실험하고자 진행한 하이퍼파라미터를 6개를 category에, 그 다음은 설정된 값을 value로 나타낸 모습이다. 각 카테고리에는 3개의 변수값이 주어지므로, 총 729개의 서로 다른 모델이 나오게 된다.

다음에 나올 테이블들을 설명하자면, 헤더 부분에서는 6개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세 구간으로 나누었기에, 'par'는 설정된 구간 값을 의미하고 'N'은 그 구간에 설정된 실험 모델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구간에 존재하는 243개의 실험 모델에 대한 정확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게 된다. Train-Validation-Test Split을 거친 상태에서 모델들을 평가하게 됐으므로, Validation과 Test 부분으로 나누어 정확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게 된다. Validation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avg\_v'와 'stDev\_v'로 정의하고, Test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avg\_t'와 'stDev\_t'로 정의한다.

Table II: Input\_dim

par (N)	100 (243)	150 (243)	200 (243)
avg_v	98.41	99.02	99.43
avg_t	89.88	91.70	93.56
stDev_v	0.79	0.50	0.34
stDev_t	0.84	1.07	0.99

Table II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input\_dim을 100, 150, 200으로 구간을 나누어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며, 구간 값이 커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을 보인다. 이는 더 큰 input 임베딩 차원을 사용할 때,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자세히 습득하여, 더 나은 학습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III: Output\_dim

par (N)	200 (243)	300 (243)	400 (243)
avg_v	98.91	98.98	98.97
avg_t	91.68	91.71	91.75
stDev_v	0.76	0.69	0.67
stDev_t	1.79	1.76	1.82

Table III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output\_dim을 200, 300, 400으로 구간을 나누어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며, 구간 값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비례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다.

Table IV: Epochs

par (N)	5 (243)	10 (243)	15 (243)
avg_v	98.64	99.07	99.16
avg_t	91.57	91.69	91.88
stDev_v	0.89	0.56	0.49
stDev_t	1.82	1.83	1.71

Table IV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epoch를 5, 10, 15으로 구간을 나누어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며, 구간 값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미세하게 향상된 것을, 표준편차 또한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보이고 있다.

Table V: Conv1D\_filter

par (N)	64 (243)	96 (243)	128 (243)
avg_v	98.85	99.09	98.92
avg_t	91.73	91.51	91.90
stDev_v	0.73	0.70	0.67
stDev_t	1.91	1.61	1.83

Table V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conv1D\_filter를 64, 96, 128로 구간을 나누어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며, 구간 값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비례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다.

Table VI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conv1D\_kernel를 5, 10, 15로 구간을 나누어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며, 구간 값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비례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표준편차는 점점 그 간격 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점점 일반화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VII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density를 64, 94, 128로 구간을 나누어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며, 구간 값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비례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다.

이로써, 모델의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는 input\_di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epochs와 conv1D\_kernel의 값이 커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Table VI: Conv1D\_kernel

par (N)	5 (243)	10 (243)	15 (243)
avg_v	98.54	99.22	99.11
avg_t	91.69	91.94	91.51
stDev_v	0.92	0.46	0.43
stDev_t	1.82	1.86	1.65

Table VII: density

par (N)	64 (243)	96 (243)	128 (243)
avg_v	99.05	98.75	99.07
avg_t	91.75	91.60	91.79
stDev_v	0.66	0.79	0.62
stDev_t	1.90	1.59	1.87

미세하게 향상되는 것을 보았을 때 특성 추출이 잘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모델의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alidation-Set 평가에서의 정확도가 가장 좋은 모델은 [200, 300, 10, 64, 10, 128]로 구간을 설정한 모델이며, Test-Set 평가에서의 정확도가 가장 좋은 모델은 [200, 300, 10, 64, 10, 128]로 구간을 설정한 모델이다.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넣는 상황 속에서 일반화하기에 좋은 모델은 후자임을 알 수 있다.

정확도 면에서 Validation-Set 평가에서보다 Test-Set 평가에서의 표준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과적합(overfitting)[27]의 여지가 있으며, 훈련되는 데이터 셋의 크기가 아직도 현저히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The Evaluation for the 2nd Test

이 실험에서는 앞서 생성했던 729개의 모델들 중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차상위 모델 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들의 하이퍼파라미터 구간은 각각 [200, 300, 5, 64, 10, 128], [200, 300, 5, 64, 10, 64], [200, 300, 5, 64, 10, 64], [200, 300, 10, 64, 10, 128], [200, 400, 5, 128, 5, 64]이다. 각 모델과 똑같은 파라미터가 설정된 샘플 모델을 각각 100개씩 생성하여 정확도 평균(표준편차)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Standard-Normal-Distribution에 따라 각 신뢰구간을 90%, 95%, 99%로 나누어 각 구간의 정확도에 대한 오차 범위를 구한다.

정확도 평균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Figure.3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3번째인 [200, 300, 5, 64, 10, 64]로 설정된 모델이며, Figure.4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4번째인 [200, 300, 10, 64, 10, 128]로 설정된 모델이다. 일반화하기 가장 좋은 기준으로는 후자에 있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 구간을 나눠서 정확도에 대한 오차 범위를 보았을 때도, 5개 모델 모두 일관된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모델들은 잘 학습되었으며, 클래스 분별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VIII: The 2nd Test for Model Specifications and Predictions

Category	Sample Model (100 * 5)				
Input_dim	200	200	200	200	200
Output_dim	300	300	300	300	400
Epochs	5	5	5	10	5
Conv1D_Filter	64	64	64	64	128
Conv1D_Kernel	10	10	10	10	5
density	128	64	64	128	64
Prediction Validation	99.215 (0.326)	99.224 (0.287)	99.426 (0.257)	99.360 (0.246)	98.819 (0.388)
90%	$\pm 0.0537$	$\pm 0.0473$	$\pm 0.0423$	$\pm 0.0405$	$\pm 0.0639$
95%	$\pm 0.0640$	$\pm 0.0564$	$\pm 0.0504$	$\pm 0.0483$	$\pm 0.0761$
99%	$\pm 0.0841$	$\pm 0.0741$	$\pm 0.0663$	$\pm 0.0635$	$\pm 0.1001$
Prediction Test	93.548 (0.866)	93.366 (0.808)	93.546 (0.774)	93.713 (0.935)	93.057 (0.942)
90%	$\pm 0.1424$	$\pm 0.1330$	$\pm 0.1274$	$\pm 0.1538$	$\pm 0.1551$
95%	$\pm 0.1697$	$\pm 0.1585$	$\pm 0.1518$	$\pm 0.1833$	$\pm 0.1848$
99%	$\pm 0.2231$	$\pm 0.2083$	$\pm 0.1996$	$\pm 0.2409$	$\pm 0.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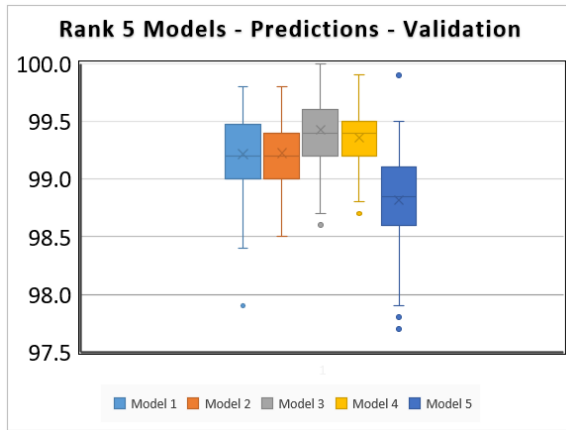


Fig. 3: Rank 5 Models - Vali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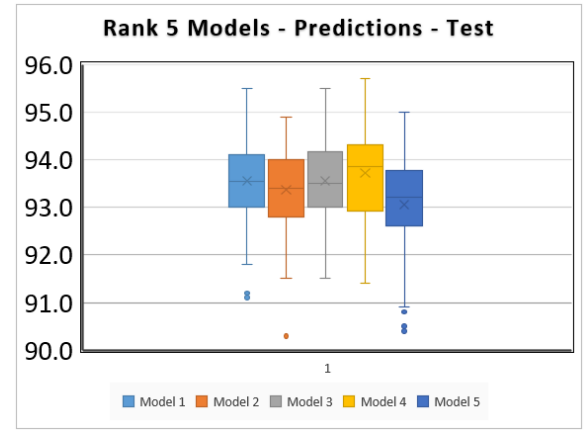


Fig. 4: Rank 5 Models - Test

## V. CONCLUSION

이 논문에서는 5,000개의 텍스트 데이터(생명과과학1 문제)를 가지고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모델을 만들 고자 하였다.

Train-Validation-Test Split 형태로 6:2:2로 무작위 데이터셋을 형성하여, 6개의 하이퍼파라미터 범주를 각각 세 구간으로 나누어 Grid-Search Algorithm을 통해 729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었다. 형성된 모델들의 각 범주들의 예측 평균 정확도와 표준편차를 나타내었으며, 각 범주와 정확도 사이 간의 비례 관계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는, 전 실험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상위 모델 5개에 대한 샘플 모델을 각각 100개씩 추가 생성하여, 각 모델들의 예측 평균 정확도와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Standard-Normal-Distribution을 통해 유의 수준을 0.01, 0.05, 0.10으로 나누어 그 오차 구간을 구 하고자 하였으며, 어떤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지 알 수 있었다.

이미 학습된 데이터 검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은 [200, 300, 5, 64, 10, 64]이며,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검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은 [200, 300, 10, 64, 10, 128]이다.

결론적으로, 학습된 유형 분류 모델에서는 20 문제 중

19개의 꼴로 적절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NN 모델의 간단한 유형 분류에서도 텍스트 중심 데이터 학습으로부터 약 93.71%라는 대체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추후의 연구로는 더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쌓였을 경우와 한 문제에 대한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들에 대한 최적의 모델 개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 ACKNOWLEDGEMENTS

## REFERENCES

- [1] S. J. Hyeon and L. H. Seok, "A study on the mathematical expression recognition of online handwriting data consisting of coordinate pairs," in *Proceedings of the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 [2] M. Zhou, M. Cai, G. Li, and M. Li, "An end-to-end formula recognition method integrated attention mechanism," *Mathematics*, vol. 11, no. 1, 2023. [Online]. Available: <https://www.mdpi.com/2227-7390/11/1/177>
- [3] J. Zheng, R. Ji, L. Zhang, Y. Wu, and C. Zhao,

- “Cmfn: Cross-modal fusion network for irregular scene text recognition,” in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Springer Nature Singapore, Nov. 2023, p. 421–433. [Online]. Available: [http://dx.doi.org/10.1007/978-981-99-8076-5\\_31](http://dx.doi.org/10.1007/978-981-99-8076-5_31)
- [4] W. Cui, X. Wang, X. Fan, S. Liu, X. Gao, and D. Zhao, “Deep network for image compressed sensing coding using local structural sampling,” 2024.
  - [5] S.-Y. Shin, K.-S. Shin, and H.-C. Lee, “Deep learning model-based text classif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Conference*, 2020, july.
  - [6] Y. Zhang, R. Yang, X. Xu, J. Xiao, J. Shen, and J. Han, “Teleclass: Taxonomy enrichment and llm-enhanced hierarchical text classification with minimal supervision,” 2024.
  - [7] H. Jo, J. Kim, S. Yoon, K. Kim, and B.-T. Zhang,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methodology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n *2015 Winter Conferenc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8] W. Jiang, P. Li, T. Fan, T. Li, C. fu Zhang, T. Zhang, and Z. fu Luo, “A quick framework for evaluating worst robustness of complex networks,” 2024.
  - [9] J. Zhou, C. Wei, H. Wang, W. Shen, C. Xie, A. Yuille, and T. Kong, “ibot: Image bert pre-training with online tokenizer,” 2022.
  - [10] T. Kudo and J. Richardson, “Sentencepiece: A simple and language independent subword tokenizer and detokenizer for neural text processing,” 2018.
  - [11] A. Lopez-del Rio, M. Martin, A. Perera-Lluna, and R. Saidi, “Effect of sequence padding on the performance of deep learning models in archaeal protein functional prediction,” *Scientific Reports*, vol. 10, no. 1, p. 14634, 2020. [Online]. Available: <https://doi.org/10.1038/s41598-020-71450-8>
  - [12] D. M. Reddy and N. V. S. Reddy, “Effects of padding on lstms and cnns,” 2020. [Online]. Available: <https://doi.org/10.1038/s41598-020-71450-8>
  - [13] K. O’Shea and R. Nash, “An introduction to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2015.
  - [14] P. Liashchynskyi and P. Liashchynskyi, “Grid search, random search, genetic algorithm: A big comparison for nas,” *ar5iv*, 2019. [Online]. Available: <https://ar5iv.labs.arxiv.org/html/1912.06059>
  - [15] K. Gorman and S. Bedrick, “We need to talk about standard splits,” in *Proceedings of the 57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 Korhonen, D. Traum, and L. Màrquez, Eds. Florence, Italy: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Jul. 2019, pp. 2786–2791. [Online]. Available: <https://aclanthology.org/P19-1267>
  - [16] B. Toleva, “The proportion for splitting data into training and test set for the bootstrap in classification problems,” *Business Systems Research Journal*, vol. 12, 05 2021.
  - [17] K.-H. Koo, “A study on the central limit theorem,” Domestic Master’s Thesis, Major in Mathematics Education, 2008.
  - [18] M. Neri and N. Pischke, “Proof mining and probability theory,” 2024.
  - [19] E. Gordon-Rodriguez, G. Loaiza-Ganem, G. Pleiss, and J. P. Cunningham, “Uses and abuses of the cross-entropy loss: Case studies in modern deep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011.05231*, 2020. [Online]. Available: <https://ar5iv.org/abs/2011.05231>
  - [20] I. Vasylytsov and W. Chang, “Efficient softmax approximation for deep neural networks with attention mechanism,” *CoRR*, vol. abs/2111.10770, 2021. [Online]. Available: <https://arxiv.org/abs/2111.10770>
  - [21] V. Dumoulin and F. Visin, “A guide to convolution arithmetic for deep learning,” 2018.
  - [22] S. Noor, O. Tajik, and J. Golzar, “Simple random sampling,” vol. 1, pp. 78–82, 12 2022.
  - [23] D. Makwana, P. Engineer, A. Dabhi, and C. Hardik, “Sampling methods in research: A review,” vol. 7, pp. 762–768, 06 2023.
  - [24] Y. Ma, Y. Cao, S. Vrudhula, and J.-s. Seo, “Optimizing the convolution operation to accelerate deep neural networks on fpga,” *IEEE Transactions on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VLSI) Systems*, vol. 26, pp. 1354–1367, 07 2018.
  - [25] D. P. Kingma and J. Ba, “Adam: 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 2017.
  - [26] B. Wesolowski and D. Musselwhite Thompson, “Normal distribution,” 01 2018.
  - [27] M. Valdenegro-Toro and M. Sabatelli, “Machine learning students overfit to overfitting,” *arXiv preprint arXiv:2209.03032*, 2022.